

AP통신 · 시장조사기관 Ipsos, 독서 실태 조사

지역, 성, 나이 불문 과거보다 독서량 현저히 줄어들어

가을이다. 그러나 예전처럼 글을 가까이 하기에 좋은 계절은 아닌 것 같다. 현대 사회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은 독서량이 줄고, 책이 잘 안 팔리는 계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손에는 리모컨을, 한 손에는 음료를 들고 아무 생각 없이 TV 앞에 주저앉기를 원한다. 하지만 책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원한다. 책은 읽는 사람의 경험, 지식, 혹은 지식에 대한 굶주림 등을 넘기는 페이지마다 새로운 세계로 이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음식물을 소화할 시간을 내려 하지 않는 패스트푸드 사회이다.

글_서주현

미국인 평균 네 권의 책 읽고

네 명 중 한 명은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최근 한국보다 훨씬 큰 도서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 이를 증명하는 조사가 있어 화제다. 지난 8월 21일 AP통신(Associated Press)과 시장조사기관인 Ipsos(Ipsos Poll)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미국인은 평균 네 권의 책을 읽었으며, 네 명 중 한 명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한다. 43%의 미국인들이 책을 읽지 않았다는 2002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독서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더욱 암울한 소식은 책 판매는 최근 수 년간 답보상태였고,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예전만큼 책을 읽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주된 이유는 앉아서 글자에 집중하지 않아도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TV는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비디오 게임은 밝은 색깔과 화려한 액션으로 게이머들을 중독시키고 있으며, 인터넷은 즉시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책은 이 모든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 다양한 흥미로운 오락거리가 있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조용해지는 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는 작가, 서적상, 출판사 등 모든 출판계 종사자들에게 힘 빠지는 일이다. 출판사들은 이제 업계 내에서가 아닌 외부의 수많은 경쟁자들과 싸워야 하는데, 미국의 대형 출판사들조차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나 힘겹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최신판이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만 봐도 그렇다. 사실 서점들은 <해리포터> 최신판을 사면서 다른 책을 사게 되리라는 기대감에서 앞다투어 이러한 판촉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이 책의 판매로 크게 수

익을 내지 못했다. 더 이상 이런 업계 내 경쟁은 소용이 없음을 알면서도 불구덩이에 다 같이 뛰어들어가는 형국이다.

미국 여성들, 한 해에 평균 아홉 권 읽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27%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남성의 1/3, 여성의 1/4이 그 범주에 든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교육을 덜 받았으며, 수입이 적고, 소수 민족이며, 농촌 지역에 살고, 종교를 덜 믿는 지역의 사람들로 집계되었다.

책 읽는 사람들의 성별 차이가 확실하다. 여성들은 한 해에 평균 아홉 권의 책을 읽는데 비해 남성은 다섯 권을 읽는다. 역사와 전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요한 서적 장르를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읽는다. 특히 소설분야를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읽는다. 출판 전문가들은 관찰 결과 남성들이 논픽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픽션은 남성들이 그다지 끌어들이지 못한다. 이야기를 접하고 싶다면 차라리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소설 시장의 20% 만을 차지하고 있다. 북그룹은 거의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넘쳐나는 신규 문학 관련 블로그들도 거의 대부분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서부와 중서부 출신 사람들은 작년 한 해 최소 한 권의 책을 읽었지만, 남부 지방 사람들은 더 많이 읽는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대부분 종교 서적과 로맨스 소설을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흑인과 히스패닉 계열 사람들보다 백인들이 책을 더 많이 읽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지 않는 사

람들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거의 두 배 정도 책을 많이 읽는다. 정치적인 구분도 있었는데, 민주당원과 자유당원은 전형적으로 공화당원과 보수당원보다 아주 약간 더 많은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3 정도 사람들이 전체 서적 중 성경과 종교 서적을 읽는다. 50% 정도의 미국인들이 대중 소설, 역사, 전기, 미스터리 분야를 읽고, 또 다섯 명 중 한 사람은 로맨스 소설을 읽는다. 정치, 시, 고전 문학 등을 포함한 다른 장르의 독자들의 5% 미만이 읽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더 나이든 사람들보다 덜 읽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새로운 세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걱정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번 조사에 대해 여러모로 살펴보았지만, 지역, 성, 나이를 불문하고 미국인들이 과거보다 책을 훨씬 덜 읽는다는 사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덧붙여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몇 년간 책 판매가 현저하게 줄어든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긴 하지만, 반스앤노블스나 볼더스 같은 서점이 계속해서 팽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의 독자들은?

우리나라에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책을 읽지 않는지 보여주는 최근 통계자료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가구 가계 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이 한 달 동안 지출한 서적, 인쇄물 구입비 가운데 학습용 참고서와 신문 등을 뺀 순수 도서구입비는 약 2,500



지역, 성, 나이를 불문하고 미국인들이 과거보다 책을 훨씬 덜 읽는다는 사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원에 불과했다. 이는 책 한 권의 평균 가격이 1만 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에 책 한 권도 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화장품 구입비와 담배 구입비는 책 구입비에 비해 각각 두 배와 세 배가 넘어선다.

이렇듯 한국인이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다행히 독서량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76%로 2년 전과 비슷했지만, 연평균 독서량은 한 권이 늘어난 약 열두 권이다. 주5일제 근무가 독서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물음에는 78%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는 어른도 네 명 중 한 명이나 되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미국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책 외에도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책 읽는 사회를 만들자고 부르짖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처럼 느껴진다. 판매 실적에 시달리는 출판사들이 뚜렷한 주관 없이 너도나도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잘 팔리는 책들을 찾아내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다. 이렇다 전 세계의 책들이 모두 비슷해지거나 똑같아져 버리는 않을지 걱정이다. **김민**

서주현님은 북코스모스 에이전시 영미권 담당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